

## 전남 '9조7천억 국고시대' 연다...논리전쟁이 성패 관건



2026년 광주·전남 예산전쟁 <하>전남도 국비예산 국회 심의 전망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전남도는 전년 대비 6.0% (5천260억원) 증액된 9조4천18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전남의 목표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9조4천억원을 삭감으로부터 지켜내는 '수성'을 넘어, 3천억원 이상을 추가 증액해 '국비 9조7천억원 시대'를 연다는 야심 찬 '공성'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성장동력 예산 '철통방어' 전략 절실

예산소위 조계원 의원과 '원팀' 대응

완벽한 데이터로 협상력 발휘 지원을

'국가전략' 프레임·해지역 연대 중요

◇'킬 존'에 포진한 '키맨' 조계원

2026년 예산 정국에서 전남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이다. 조 의원은 300명 의원 중 단 15명 안팎으로 구성돼 예산의 '칼자루'를 쥐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오는 17일부터 가동될 예산소위는 예산의 실질적 증감액이 결정되는 '킬 존(Kill Zone)'이다. 전남 입장에서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내부자'를 확보한 셈이다. 조 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타 지역 위원들과의 '정치적 협상'이다. 전남의 목표 달성은 그의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남도가 '9조7천억원 시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어'와 '공격'의 정교한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정부안에 반영된 '미래 100년' 성장 동력 예산을 철통 같이 방어해야 한다.

SOC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2단계 (1천622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천672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R&D의 경우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천196억원), 화순 차세대 융합면역치료 (40억원), 해양배터리 특허 데이터 허브 (20억원), 석유화학단지 CO2 포집 실증 (55억원) 등 정부의 R&D 투자 기조와 일치하는 사업들이다.

전남 증액 목표 (3천억원+α)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최대 격전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

업이다. 정부는 건의액 2천600억원에서 988억원 삭감된 1천632억원만 반영했다. 이 삭감 논쟁은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 간 치열한 '논리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정부)의 삭감 논리는 '현재 공정률이 44~51%로 부진하다. 예산을 증액해 줘도 다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에 대한 전남도의 반박 논리는 '공정을 부진은 '과거'의 문제다. 토지 보상 지연과 터널 압질 문제 때문이었으나 '현재' 토지 보상은 98% 완료됐고 문제도 해결됐다. 이제 예산 (988억원)만 투입되면 즉시 집행해 2026년 내 완공이 가능하다. '지금 삭감은 곧 완공 지연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남도는 조계원 의원에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감리 보고서와 공정 현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산업 씨앗심기' 전략 병행해야

이와 함께 2025년 성공 모델이었던 '미래산업 씨앗 심기'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반영은 어렵지만 5억~10억원의 '타당성 조사비'나 '마스터플랜 수립비'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일단 이 '시작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 사업'이 돼 2027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지는 고도의 전략이다.

예산전쟁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 승패는 '정치적 연대'에서도 갈릴 수 있다. 예컨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호남과 영남의 이해관계를 묶는 '정치적 동맹 카드'다.

예산소위에서 조 의원이 야당 위원에게 "달빛철도를 지지할 테니, 호남고속철 증액을 지지해달라"고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결국 '키맨'의 협상력과 '원팀'의 완벽한 논리 지원이 '전남 국비 9조7천억원 시대'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AI산업, 우주산업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산업이라는 논리는 정부의 R&D 기조와 부합하며 야당의 '과주기' 비판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전남의 내년 예산은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전략 투자'라는 프레임에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2025년산 추곡 수매 한창

2025년산 추곡 수매 공공비축미 매입이 11일 오전 광주 북광주농협 우치동지점에서 열린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이 미곡의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1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모두 2천513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시점 안 내놓는 광주시

시의원들 질타에도 "올해안 발표"만 반복

市 "무계감 커...내년 6월 토목 준공목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 공개를 요구하는 광주시의회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일정 발표를 유보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을 놓고 "최소한 공사 일정표상의 마감 시점이라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집행부는 "공정 재조정 중이다. 올해 안

에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임미란 의원 (더불어민주당·남구2)은 "광주시는 '최대한 빨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민들은 답답하다"며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일정표가 있는데 벽에 붙은 일정표의 마감이 언제인지조차 밝히지 않으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현재 발생한 변수들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토목 공정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광산3)도 "공사 진행 상황을 근거로 개통 시점이 사실상 특정 구간으로 예상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1단계는 현재 계약 상태나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 6월까지 토목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상반기 토목 준공 후 1년 정도 시운전을 거쳐 (개통 시점)을 2027년 6월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오 본부장은 "말 한마디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크다"며 "단순 예측은 가능하나 최종 시점은 공정 재조정 후 공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변은진 기자

## 수능 D-1...오늘 예비소집

수험표 배부...과목·시험장 숙지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10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7면

1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2일 소속 (출신) 학교에서 수능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예비소집과 함께 수험표를 배부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단, 시험실이 마련된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위치는 건물 외부 유리창에 부착된 안내표로 확인해야 한다.

또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일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만2천683명이며 85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에 명기된 지정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1교시 전까지 대기해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 실내화, 개인 도

시각, 음용수를 지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등 모든 전자기기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물품, 기타 충전식 기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박선욱 기자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 승 환 대표이사

松川

(주)송천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시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